



재정경제부

보도자료

Press Release

- 풍요로운 나라
함께하는 선진경제
- 고품질 정책으로
신뢰받는 재정부

보도일자

배포시 부터

생 산 일

2006.7.31(월)

생산부서

EITC 추진기획단

담당과장

안택순(T:02-2150-9410)

담 당 자

이선영(T:02-2150-9412)

제 목 : '근로장려세제' 를 EITC 명칭으로 선정

○ 재정경제부는 도입을 추진중인 EITC(Earned Income Tax Credit) 명칭을 '근로장려세제'로,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'근로장려금'으로 선정하였습니다.

- 지난 5월 종전의 '근로소득지원세제'보다 쉽고 친숙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 발굴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새명칭 공모(5. 8~5. 22, 15일간)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
- 새명칭은 응모된 총 917개 명칭을 바탕으로 학계·기자·홍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'새명칭심사위원회'에서 후보안이 마련되었고, 'EITC실무위원회' 심의와 온라인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.

- 이에 따라 응모명칭 중 선정된 명칭과 가장 유사한 '근로장려세'를 우수작(3인, 각50만원)으로, '근로장려금'을 가작(2인, 각20만원)으로 선정, 상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.

구분	상금	응모명칭	응모자
우수작	50만원	근로장려세	정인권, 박기호, 이경수
가작	20만원	근로장려금	정연상, 권오상

○ 향후 새로운 명칭은 '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'의 슬로건과 함께 제도안내 및 홍보를 위해서 사용될 뿐만아니라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마련시 사용될 계획입니다.

<참고>

□ ‘근로장려세제’ 선정사유

-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여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목적은 가장 잘 전달하면서도 간결하여 이해하기 쉬움

□ 슬로건을 추가하여 브랜딩 추진

- 제도 목적이 잘 함축된 ‘근로장려세제’명칭을 브랜드로 사용하되 감성적 호소력 제고를 위해 슬로건 추가
-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동시에 희망을 살려줄 수 있는 제도임을 강조
 - 희망을 살려주고 살림살이의 희망이 됨을 의인화하여 ‘희망 살림이’ 등으로 표현

일일소득 제외대상

근로장려세제

<공동 슬로건>

- ① 나라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
- ② 일하는 기쁨 누리는 즐거움
- ③ 일하는 기쁨 누리는 즐거움 “희망살림”